

-(으)ㄴ/는 셈치고

~한/는 셈치고 — 그런 것으로 치고, 그렇다고 여기고

편의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고 넘어갑니다. 셈치다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친다는 뜻입니다.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여기고 진행하는 것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셈치고	속다 → 속는 셈치고
완료된 동작	-(으)ㄴ 셈치고	잃어버리다 → 잃어버린 셈치고
명사와 함께	명사 + 셈치고	공부 셈치고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셈치고
관용 표현	속는 셈치고	혹시나 하는 마음으로
실제로 사실	-(으)ㄴ/는 셈이다	끝난 셈이에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다음을 따릅니다: 관형형 체계. 동사는 -는 셈치고, 완료된 동작은 -(으)ㄴ 셈치고를 씁니다. 명사에는 셈치고가 바로 붙습니다. 셈치다는 한 단어로 씁니다.

서로 사실이 아님을 아는 가정을 내세워 결정을 쉽게 만듭니다: 잃어버린 셈치고 잊어버리세요 — 잃어버린 것으로 치고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.

가장 흔한 예는 속는 셈치고 — ‘혹시나 하는 마음으로’라는 뜻으로, 글자 그대로는 ‘속는 것으로 치고’입니다.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해 보겠다는 일을 꺼낼 때 씁니다.

다음과 구별하세요: -(으)ㄴ/는 셈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실제로 거의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. 셈치고는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.

■ 예문

- 1 속는 셈치고 한번 해 보세요.
- 2 잃어버린 셈치고 잊어버리려고요.
- 3 운동하는 셈치고 한 정거장 걸었어요.
- 4 공부 셈치고 이번 일을 맡아 보겠습니다.
- 5 직접 만드는 셈치고 재료비만 받을게요.
- 6 기부한 셈치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.

■ 비교

-(으)ㄴ/는 셈이다
셈이다는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주장하고, 셈치고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편의상 그렇게 여깁니다.
끝난 셈이에요. (사실상 끝났다) / 끝난 셈치고 (끝난 것으로 치고)

-(으)ㄴ/는 척하다
척하다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, 셈치고는 마음을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 스스로와 하는 약속입니다.
모르는 척했어요. (모르는 체했다) / 잃어버린 셈치고 (잃어버린 것으로 치고)

속는 셈치고
통째로 외워 둘 만한 표현입니다. 안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인정해서 제안을 부드럽게 합니다.
속는 셈치고 한번 드셔 보세요.

■ 주의

- ✗ 속제를 다 했으니까 끝난 셈치고 쉬어요.
- 속제를 다 했으니까 끝난 셈이니 쉬어요.
정말로 끝났다면 셈이다를 씁니다. 셈치고는 사실이 아님을 아는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
- ✗ 직접 만들든 셈치고 재료비만 받을게요.
- 직접 만드는 셈치고 재료비만 받을게요.
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속는 셈 치고 해 보세요.
- 속는 셈치고 해 보세요.
셈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.